

† 찬미예수님

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다른 위격을 지니시면서도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는 존재론이나 논리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2017년 6월 11일 삼위일체 대축일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주임신부 이야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걷기대회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후원 받은 정성은 앞으로 여러분의 교육과 활동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고생한 보람을 앞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아나요?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지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만일 있다면 그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6월 예수성심성월에 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성심.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곧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기가 6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살다 보면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생깁니다.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마음에 들기에 가까이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에 싫은 내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기준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하늘을 담으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자기 중심'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결국 이타적인 삶이 될 것이고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행복한 삶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다는 것.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닦는 신앙생활은 행복의 길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기 바래요.

=====

2017년 6월 첫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야외미사 하모니/뜨락회 후원 기금마련 걷기행사 (6/4 주일)

하모니 뜨락회 후원 기금마련 걷기행사 및 야외미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봉사해주신 김광찬, 류은정, 금채은, 이윤지, 장 익, 김정호, 권창모, 최보나, 김종식, 안해준, 홍상미, 문지영,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자매/형제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분들 및 5개 성당 - 트라이벨리, 산호세, 세크라멘토, 몬트레이, 샌프란시스코-의 정성스런 후원으로 약 \$9,000의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아래, 결산내역 참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언제나 사랑으로 청년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모니/뜨락회 걷기행사 결산내역

후원가정/단체/개인 : 82 가정/단체/개인

후원금 : 완납 \$8,900.00, 미납 \$200.00; 예상 후원금 총액 \$9,100.00

사용 경비 : 기념품비 \$223.08; 행사 진행비 \$485.12

청년들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걷기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 및 격려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성스런 후원금은 앞으로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지난 한달동안 매주 홍보/접수 봉사에 수고한 하모니/뜨락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자 (6/11 주일)

전진영 베로니카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간담회 / 하모니 회합 (6/11 주 일)

6/11일 주일 교중미사 후에 신부님과의 단체장 간담회에 하모니 회장 전진영 베로니카와 부회장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들이 참석합니다. 하모니 회합은 총무 안해준 야고보의 인솔하에 차질없이 있을 예정이니 교중미사후 하모니 회합실 (교육관 202호실)로 모여 주세요.

만남의 성경모임 - (6/17 토)

조 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루카복음 만남의 성경모임이 6/17 토요일 오후 2시에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6월 17일 토, 오후 2시-4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가톨릭 성서 가족 모임 - 7/2 주일 (7/2일로 날짜가 변경됐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을 하나라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7/2일 주일 교중미사 후에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6/25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7월 2일 주일 점심식사 후 - 오후 6시 (점심 제공)

장소: 교육관 106호실

도서실 봉사자 모집

성당에서 아침 8시 미사 후에 11시 미사 후에 도서실 (교육관 2층, 하모니 회합실 건너방)에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소개 -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최재훈 형제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6월 생일 - 축하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6/18 김동은 글라라

6/19 박수현 프란치스코

6/21 김종식 요한

6/29 이의천 베드로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님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